

〈 2016년 교구장 사목교서 〉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교구의 모든 가정에 주님께서 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통하여 주님의 지체가 된 우리 모두는 주님을 가장으로 모신 큰 집안의 식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큰 집안인 교회를 구성하는 기초는 바로 교우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인 복음화는 바로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병폐들 중 많은 부분이 가정의 문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열의와 보다 치열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25일까지 열렸던 세계 주교대의원회에서 가정의 소명과 사명을 의제로 삼았던 것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편 교회의 관심과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올해에는 가정의 성화를 위해 교구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오늘날 가정은 매우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혼인을 주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혼인 연령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가치관이 붕괴하는 가운데 가족 간의 소통 장애가 심해지고, 일인가구, 조손가정, 이혼하는 가정 등의 깨어진 가정과,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는 이와 같은 가정의 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국가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가정이 무엇이며 어떠한 가치와 사명을 지니는지 신앙 안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도성(都城)에 빛을 비추는데 그 첫째 자리는 가정”(『신앙의 빛』, 52항)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심으로써 (창세 1,27 참조)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습을 취하실 때에도 가정의 일원이 되시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라심으로써 성가정의 모범을 남기셨고(루카 2,51 참조), 첫 기적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셨으며(요한 2,1~12 참조), 신자들 간의 혼인을 성사로 제정하셨습니다(마르 10,1~12 참조). 바오로 사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느님께서 복을 내리시어 거룩하게 하신 부부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큰 신비(에페 5,21~33 참조)이므로, 가정은 사람에게 지워진 굴레가 아니라 그를 고양하고 완성하는 은총의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 믿음의 보화는 등경 위에 놓인 등불처럼(마태 5,15 참조) 세상을 비춤으로써 기쁨과 희망의 원천이 됩니다.

주 예수님과 성모님, 요셉 성인께서 보여주신 이 기쁨과 희망이 지금 우리 가정들과 세상에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교구의 여러 기관과 단체들은 서로 협력하여 성가정의 모범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가정들을 격려하고, 젊은이들이 혼인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며,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자비의 희년’을 맞아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위로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한 노력의 현장인 본당들은 교구와 대리구의 지원을 기꺼이 활용하여 소속된 가정들의 성화와 곤경에 처한 가정들의 치유를 위한 사목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마련하고, 가정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도록 이끌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과 함께 인근의 가정들을 위한 공동선을 추구할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사제들은 가정에 맡겨진 거룩한 사명에 대해 교우들을 가르치고 고해와 상담에 기꺼이 응하며, 거룩한 민감함과 자상함으로 상처 입은 가정들을 보살피고 교우들과 협력하여 치유의 방도를 성실하게 찾기 바랍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평신도들은 자신이 바로 가정 복음화의 주역임을 깨닫고 성가정을 이루는 일에 끈기 있게 헌신하여야 하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복음의 정신에 따라 기르는 데 힘쓰고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소통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하느님의 선물임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청소년들과 특히 혼인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은 사랑을 위해 자신을 모두 바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생각하고 머지않아 하느님께서 맡기실 가족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보존하여야 하겠습니다. 성가정은 주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므로, 어느 집안이든 다만 한 사람이라도 교우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셔서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가정을 이루는 이 사명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족들을 위해, 또 가족과 함께 꾸준히 기도하며, 도움이 필요한 다른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가정생활 안에 그분을 모셔 들일 때 그 가정은 구원의 공동체가 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가까운 교회”(2015년 7월 6일 에콰도르 사목방문 중)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내려주신 큰 은총을 묵상하고 모든 가정 안에서 그 은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결점이 많은 우리를 택하시어 은총의 도구로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큰일을 완성하시어, 교구의 모든 가정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마 12,1)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가정과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 가정과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015년 11월 29일 대림 첫 주일에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 환 길(타대오) 대주교

†. 3월 21일 타대오



기다림

박성진 요한 신부 | 원평본당 주임

대림절은

- (1)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시기이며
- (2) 장차, 마지막 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오늘 복음은 깜빡 잊고 살던 저 세상을 준비하게 하는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루카 21,28)

주님을 그리워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대림절입니다.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속량이 가까웠습니다.

은혜 충만한 대림절 왔네. 보라! 첫째 초 켜진다. ♪♪

기뻐들 하라 형제들아 주 임하셨도다. ♪



† 오늘의 전례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루카 21,25-28,34-36 참조)

오늘은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 제1주일입니다. 대림은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주님 앞에 나설 준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해보면 아직 우리는 주님 앞에 나서기에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나쁜 습관이나 생활방식을 고치고 기도와 선행에 힘쓰며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합시다.

제1독서 예레 33,14-16 **제2독서** 1테살 3,12-4,2 **복음** 루카 21,25-28,34-36.

회답송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믿음의 외길

은종일 보니파시오 | 범어본당

세례사제의 물음에 “끊어 버립니다.”, “끊어 버립니다.”, “끊어 버립니다.”라고 죄도, 악의 유혹도, 마귀도 단칼에 날려버릴 듯이 강고한 확약을 드렸다. 서른다섯 해 전의 일이지만 세례 때의 감격만큼이나 또렷하다.

하지만 ‘주님의 지체’로 새로이 태어났다는 감흥이 사라지면서부터 서서히 권리보다 의무가, 기쁨보다 부담이 믿음의 길에서 앞장을 섰다. 세상의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세상의 잣대로 치열하게 살다가보니 때때로 주님을 잊고, 멀리하고, 모른 체하고, 심지어 적당히 타협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도 믿음의 길에서 놓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이 하나 있다.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마태 7,12)라는 황금률이다.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인 이 황금률마저도 ‘착하게 살기’로 변용되어 신자가 지킬 기본인 것처럼 여겨온 그 정도였지만 말이다.

십여 년 전, 속은 비었고 겉만 그럴듯했던 무늬신자인 나에게 회심의 기회가 주어졌다. 평생직장에서 지상의 목표로 키워왔던 개인적인 꿈이 외부환경의 변화로 좌절되면서 쓰임의 역사(役事)를 맡게 되면서부터였다. 회심은 나의 빈속을 신심으로 채우자는 다짐으로 이어졌고, 그 신심은 성경말씀과 신학을 아는 만큼 깊어지리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바뀌었다.

우선 성경을 완독해보자. 시험공부 하듯이 성경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두 번을 완독한 반년의 성경공부는 부족함을 깨닫는 과정일 뿐이었다. 그것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교 육원의 성경과정과 신학일반과정 이수로 이어졌다.

나의 빈속이 조금씩 채워지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6)는 복음말씀에 힘이 꽂혔다. ‘예수님을 통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이유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함일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의 전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시는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디아서 2,20)라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한다.’의 해답으로 다가왔다.

그로부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를 내가 가야 할 ‘믿음의 외길’로 여긴다. 하지만 현실은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 바로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흔들리며 살아간다.

주님! 믿음의 길에서 주님을 잊고, 멀리하고, 모른 체하고, 적당히 타협하려드는 저를 용서하시고 항상 일깨워주소서. 아멘 **궤**



포기할 줄 아는 용기

아름다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미모에 못 남성들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윽고 용기 있는 세 명의 남자가 여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한 명은 이웃 나라 왕자였고 또 한 명은 용맹한 기사, 그리고 또 한 명은 부유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여인은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세 명 다 놓치기 아까운 남자였습니다. 고민은 몇 날 며칠 계속 되었고 급기야 한 달을 넘어 두 달로 이어졌습니다. 그 고민의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다림에 지친 세 명의 남자는 여인을 떠났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모두 떠난 사실을 안 여인은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후회는 곧 병이 되었고 불운하게도 여인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훗날, 여인의 무덤에서 꽃 한 송이가 피었는데 그게 바로 <튤립>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비극적인 결말은 포기하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것들은 놓을 줄 알아야 하는데 모두 다 탐을 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현명한 선택이란 하나를 위해 다른 것을 놓아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곧 얻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할까요? **말씀**



금주의 성인

11월 29일	성 라드보드(주교, 위트레흐트, 918년), 복자 레템토(순교자, 1638년) 성 사투르니노(주교, 순교자, 툴루즈, 257년), 성녀 일루미나타(동정녀, 토디, 320년) 복자 프레데리코(증거자, 레겐스부르크, 1329년), 성 필로메노(순교자, 안키라, 275년)
11월 30일	성 안드레아(사도, 순교자, 1세기)
12월 1일	성녀 나탈리아(과부, 순교자, 니코메디아, 304년경), 성녀 칸디다(순교자) 성 아제리코(주교, 베르됭, 521-588년), 성 안사노(순교자, 시에나, 304년) 복자 샤를 드 푸코(신부, 은수자, 1858-1916년), 성 엘리지오(주교, 누아용, 588-660년)
12월 2일	성녀 바울리나(순교자, 256년), 성녀 비비아나(동정 순교자, 4세기경) 성 실바노(주교, 트로아스, 450년), 성 크로마시오(주교, 아퀼레이아, 407년)
12월 3일	성 카시아노(순교자, 탕헤르, 298년),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신부, 선교사, 1506-1552년) 성녀 힐라리아(순교자)
12월 4일	성 마루타(주교, 메소포타미아, 415년경), 성 멜레시오(주교, 폰투스, 295년) 성 세쿰디노(주교, 던슬로글린, 375-447년), 성녀 바르바라(동정 순교자, 306년) 성 안논(주교, 쾰른, 1075년), 성 오스문도(주교, 솔즈베리, 1099년) 성 요한(신부, 교회학자, 교부, 다마스쿠스, 650-754년)
12월 5일	성 바소(주교, 순교자, 니스, 250년), 성 사바(수도원장, 팔레스티나, 439-532년) 성녀 크리스티나(수녀, 마크게이트, 1097-1160년), 성 펠리노(주교, 순교자, 361년)

■ 5대리구 청소년 견진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1월 15일(일) 오후 2시 구미 원평성당에서 143명의 청소년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셨다.

■ 주교 현장 체험(들꽃마을)



대주교님께서는 11월 17일(화) 오전 11시부터 들꽃마을 고령 본원에서 열린 주교 현장 체험에 참석하시어 배식봉사를 하셨다.

사진제공 : 월간빛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 48주간, 2015. 11. 29~12. 5 >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로마9-11장	12-16장	1코린1-4장	5-7장	8-11장	12-14장	15-16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코린토 1서』

- 클로에 집안이 보고한 코린토 교회의 세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변(1,11-6,20)
 - ① 공동체 안에서 생긴 세례를 둘러싸고 생긴 파당 문제에 대하여(1,10-4,21)
 - ② 근친상간과 문란한 성(性)에 대하여(5장:6,12-20)
 - ③ 이방 법정에서 교우들끼리의 송사하는 관행에 대하여(6,1-11)
- 코린토 교회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변(7-15장)
 - ① 혼인과 독신에 대한 종말론적 전망에서의 답변(7장)
 - ②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8,1-11,1)
 - ③ 전례 때 갖추어야 할 합당한 몸가짐과 성찬례의 올바른 거행에 대하여(11,2-34)
 - ④ 받은 영적 은사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12,1-14,40)
 - ⑤ 몸의 부활에 대하여(15장)

문의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1월 30일(월) 11:00 죽도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2월 5일(토) 11:00 대안성당
경주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2월 2일(수) 19:00 용강성당	푸른군대 첫토요 신심미사	12월 5일(토) 11:00 성모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2월 2일(수) 11:30 계산성당	발달장애자와 가족을 위한 월미사	12월 6일(일) 16:00 성토마스성당
포항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2월 3일(목) 19:30 4대리구청	—	—

성소 | 피정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12.5(토)
 주제: 계약의 궤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문의: 다사성당, 587-7300

수도생활 체험 피정(노장년층)

기간: 12.18(금) 16:00~20(일) 13:30
 장소: 성베네딕도왜관피정의집
 비용: 14만 원, 대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 (010)3567-6083

2박 3일 무료 치유 피정

기간: 12.4(금) 18:00~6(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무료숙식)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교육 | 모집

제2회 가톨릭영화제 순회 상영전

기간: 12.5(토)~6(일) 14:00~16:00
 장소: 동성로 대구바로로팔서원(무료)
 문의: 425-5185 / 425-5373

빛떼제 성탄음악제

일시: 12.12(토) 18:00~22: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내용: 식사, 떼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신청: (010)9056-9005

대가대 평생교육원 겨울학기 모집

학점은행(사회복지학·아동학·실습 포함)
 음악원(1:1레슨)/취미교양/자격증과정
 모집: 12.18(금) / 문의: 660-5554~7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2박 3일: 12.18(금) 17:30~20(일)
 4박 5일: 12.7(월) 14:00~11(금)
 8박 9일: 12.26(토) 14:00~1.3(일)
 문의: (031)946-2337~8

바로로 모래놀이 상담센터

대상: 학교부적응, 우울 및 대인관계
 에 어려움 겪는 아동 청소년·성인
 운영: 샬트르성바로수녀회
 모래놀이 전문치료사 박지선 수녀
 문의: (010)4600-2433 / 659-3333

제1회 평화방송 가톨릭 영어캠프

기간: 1.3(일)~30(토) 4주
 장소: 필리핀 마닐라 클리르리조트

대상: 초등학교 2학년~중학교 3학년
 문의: (02)734-0999 / www.pbc.co.kr

2016 살레시오 초등부 겨울신앙학교

기간: 1.7(목)~8(금) / 12(화)~13(수)
 14(목)~15(금) / 16(토)~17(일)
 장소: 살레시오초소년수련원(대전)
 주제: 예수님과 새롭게 즐겁게
 신청: (042)584-0654(본당별 선착순)

꽃동네 젊은이 치유기도의 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 젊은이를 초대합니다.
 기간: 12.5(토) 19:00~6(일) 3:00
 매월 첫째(토) 19:00~(일) 3:00
 문의: (010)5490-5345

충주성모학교 시각장애학생 모집

교육 재활이 필요한 시각장애인
 저시력인을 위한 순회 맞춤형 교육
 장학혜택 지원공학기기 제공
 문의: (043)852-1374
 연중 수시 상담 및 입학 안내

양로원 어르신 모집(여성기초수급대상)

대상: 65세이상 일상생활 가능 하신 분
 기관: 성모애덕의집(수녀회 운영)
 문의: (054)976-6219 / (010)9568-0099

더편한내과
 부설: 건강검진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월배로 470
 군청빌딩 3층 (구 달성군청)
 원장 윤석진 (야고보) ☎ 053)651-7585

경일신경과·내과
 대표전화 053) 652-2525
 2호선 내당역 2번 출구 (홈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 치매 / 뇌졸중 상담 268-2525
 • MRI 예약 262-2525
 • 위/대장 내시경, 성인병 종합검진

상위 1%의 꿈, 학습무기를 준비하라!
UP 학습코칭
 • 공부방법 특강 · 분석독서코칭(비,문학)
 • 시험코칭 · 다중지능/적성검사/상담
 윤 종 선 (가필로)
 ☎053)752-0966 범어동 KBS앞
 NAVER 대구UP학습코칭 검색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건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 · 대장내시경 · 용종절제술
 한눈에 편안하게!!
 당뇨 · 고혈압
 소화기 · 내시경 원장/전문 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십견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원장 이준석(이나시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흠(요한)
T. 630-8000 순천역 2번 출구

행사 | 모임

대구가톨릭음악원 27회 성음악 발표회

일시: 12.10(목) 19:30
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두류공원 내)

성령봉사회 행사

송년철야: 12.25(금) 25:00~26(토)
1박 2일 피정: 12.26(토)~27(일)
강사: 이상기(가브리엘)
2박 3일 성령세미나: 1.8(금)~10(일)

바르셀로나를 꿈꾸다. 안토니 가우디전

일자: 11.20(금)
장소: 대구MBC 1층 특별전시장
문의: 대구MBC, 744-5400
주보 1부로 2명까지 2천 원 할인

교육 | 모집

사회교리주간 특강-회칙(찬미밭오소서)

일시: 12.9(수), 12.11(금) 19:30~21:00
장소: 대신학원 대강당
주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문의: 250-3163 / (010)9544-1838

대구PBC 신앙특강 대구대교구 100년사

부제: 함께 걸어온 우리 100년

대구천주교인들 어떻게 살아왔나?

특강일시: 매주(금) 10:00~11:30
장소: 계산성당 1교리실 / 251-2654
방송일시: 매주(금) 14:05~15:00

12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일신앙특강

일시: 12.12(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침묵의 크리스마스
강사: 박민서(베네딕도)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요셉 발 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알면 우리의 건강이 보입니다.
누구나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법
일시: 매주(토) 14:00~16:00
장소: 가톨릭문화관, (010)3817-5255
문의: 476-7774 / www.footfather.com

중국어 성경 연구반 모집

일시: 매주(토) 14:30 / 회비: 월 1만 원
장소: 남산동 대신학교 내 강의동
주관: 가톨릭한중친선협회
문의: 진시형(요셉), (010)4931-0996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 고전무용, 동화구연 2급, 필라테스,

오카리나성가, 회화, 가곡성가, 발성법, 수
지침, 하모니카성가, 미술심리상담사 2급,
문학창작, 왕초보관광영어, 제대꽃꽂이,
사범꽃꽂이 / 신청: 254-6115(성모당 내)

프란치스카눔 성경공부(마르코복음)

기간: 2016.3월~5월 매주(수, 목)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수도원 뒤)
강사: 강주현(사도요한) 신부
문의: (070)4266-0047 / (010)9100-4114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입학설명회

일시: 12.5(토) 14:00
대상: 본교에 관심있는 학부모
문의: (054)338-0530
<http://www.sanjayeon.ms.kr>

채용 | 안내

2016 안드레아유치원 담임부담임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 andreas7952@naver.com
문의: 611-7952 / (010)9922-7952

교구에서 출자한 상조회사는
(주) 매일상조 한 곳 뿐입니다.
이 외에 가톨릭이라는 상호를 사용
하는 업체는 교구와는 무관합니다.

대구평화방송(FM 93.1)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

대구대교구 원로 사목자와 원로 수도자의 삶을 나누는 휴먼 다큐 '엄마라 사랑따라' (대구평화방송 홈페이지 다시듣기 가능)
시간: 매주 토 오전 11시 5분~12시 / 재방송 주일 오전 11시 5분~12시 (주파수: 포항 96.9MHz, 안동 100.7MHz, 김천 100.5MHz)

12월 5일(토) 조정현(바드리아) 신부

12월 12(토), 19일(토), 26일(토) 이정추(바오로) 신부

대건신학교 함께하는
“바오로 사도”
발자취를 따라서...
터키, 그리스 - 12박 13일
출발일: 2016년 4월 25일
T. (053)253-3399
조 열 레(유스티노)
홍 미 희(안젤라)

미소나라 MISONARI **출장뷔페**
예약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대표 양 애 향(마리아)
주최: 사회자기업 (주)서구엘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라.kr>

대구그리다스튜디오
설렘으로 다가와
추억을 그리다!
가족촬영 | 우정촬영 | 리마인드촬영 | 웨딩전문촬영
드레스대여 | 텍시도대여 | 메이크업 · 헤어디자인
김 대 현(프란치스코)
☎ 053)424-7777 | 010-2112-8236

구스다운/커버 **이불 / 침구류**
국내/국제특허 **성당방석 / 단체사은품**
CARITAS
HAN KWANG **한광**
안젤라 권순화
010-9357-9988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움산부인과
임상애현(크리스티나)
보험공단 저공경부암검진, 오실금클리닉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여성성형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스피치 킴의 가장 핵심이다!
Speech Kim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 & 발표력 & 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시 · 취업 면접, 화술 · 화법
대상 :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교육** 검색 김민지(사버나)

대구연세안과
아이디자인라식 · 렌즈삽입술 · 노인수술 · 백내장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원장 **박중원**(소시모)
현.연세대의과교수
☎ 053)626-8881~5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노블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결혼**
미팅회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사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영주(젤마) 박요안나**
상인역 출몰버스 맞은편 / 범어동 경신교 입구